

‘기술 정보 대국의 기틀 마련을 위해’

-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설립 -

조영화

1. 개요

탈냉전 이후 세계는 정치, 군사 경쟁시대에서 경제, 기술 경쟁시대로 전환되면서 기술보호 주의가 심화되어 첨단기술의 이전을 조직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92년 4월 CIA의 GATE 국장이 주장하였듯이 기존 CIA 기능이 종래의 국가안보 관련 정보 위주에서 해외 기술정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각국은 과학기술정보 획득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국내 과학기술 정보 DB가 몇십종 있으나 필요한 MASS의 미축적으로 활용이 저조하여, 다가오는 정보 사회에 막대한 DB 산업 시장 형성을 선도하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에의 정보 예측을 탈피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기술개발의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질수록 모방형 연구개발은 총투자의 10% 정도, 창조형 연구개발은 총 투자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R & D 활동에서 정보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술정보 요구도 일반공개 정보위주에서 심층정보 위주로 전문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국제정치, 경제, 외교측면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종래의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기술정보활동에서 탈피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기술정보 대국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 기술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세계화, 기술 열강간 전략적 동맹의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핵심 기술 관련 정보, 첩보의 효율적인 수집활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정보력은 산업경쟁력 및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범 국가적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가공, 유통,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의 조기 구축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자원이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가공, 분석, 유통할 수 있는 전담기관(연구개발정보센터)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연구개발정보센터는 기존의 시스템공학연구소 내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단을 모체로 하여 1993년 4월 KIST부설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관으로 육성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방향 및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전문 분야별 정부출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분야별 과학기술 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쉽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정보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종합정보서비스 기능이 있고, 둘째 공동 참여하는 전문 분야별 출연연구소(전문정보센터)의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및 예산 배분 조정의 기술지원 종합조정기능이 있으며, 셋째 과기처를 비롯 상공부, 체신부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첨단기자재 정보 DB 구축 등 국가 공용 데이터 베이스 종합정보센터 기능, 넷째 과학기술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정보의 체계적 수집, 정리, 보급하는 과학기술정보의 중앙자료센터의 역할, 다섯째 표준화 및 정보유통시스템개발,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유통 표준시스템개발센터 기능이 있다. 국내외 주요 과학기술 정보의 종합 분석 및 기술 자문 체제구축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보유통을 위한 체계 아래 설립되었다.

2. 배경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정보기관 및 기능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

을 즈음인 1991년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국가적인 과학기술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있어 곧 바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기술정보관리부문 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최형섭 전 과기처장관과 이은철 서울대 교수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은 SERI 조영화 단장, 산업기술정보원 이학오 실장, 대한무역진흥공사 엄창섭 부장, 정책관리연구소 윤문섭 실장으로 구성되었고, 나중에 동아일보 이용수 부장이 추가되어 다른 부문 소위원회보다는 훨씬 많은 5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되었다. 이 당시 본인은 2주 예정으로 각국 기술정보기관과 업무협력차 출장중이었는데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회의 진행이 무척 빨라 꼭 참석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출장중반쯤 급히 귀국하게 되었다. 십여 차례가 넘는 회의, 공청회, 전문회의 등이 열렸고, 열띤 토론도 참 많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은 92년 4~5월 어느날 오후에 회의를 마치고 전문위원, 자문위원이 맥주 한잔하고 난 뒤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되는 산업기술정보원 이학오 실장과 본인 단둘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저녁 9시경부터 7시까지 술집을 옮겨 다니면서 토론을 하고, 집에 가면서까지 끊임없는 설전을 벌인 일은 추억에 남을 일이다.

여러 차례 보고(안)이 조정되고, 대통령 보고 일자도 연기된 끝에 92년 10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가 이루어졌다. 국가과학기술정보를 위해 많은 안이 보고되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이 된 것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 보고 당시 상공부장관의 이견도 있었지만, 경제기획원에서 대통령 지시에 대한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현황분석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간 회의를 통해 기존의 SERI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을 모체로 하여 KIST 부설로 연구개발정보센터를 설립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과기처에 통보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3년 4월19일 KIST 이사회에 센터 설립건이 상정되어 통과됨으로써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설립되었다.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초대소장으로 성기수 박사님이 1993년 5월 취임하시고 SERI로부터 정보유통사업단이 분리되어 정식으로 센터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3.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과기처의 10년 숙원사업이던 정보센터 설립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건의, 경제기획원에서의 긍정적인 검토 끝에 갑자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관련된 기관 및 직·간접으로 간여하신 분들간에 상호 이해 및 대화 부족으로 몇몇 이야기 거리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 기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으므로 결코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설립 당시 정보센터가 서울로 가느냐, 대덕에 있느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연구단지 아파트는 입주 시작되어 당시 정보유통사업단 소속직원들이 입주 여부 등 매일 진척상황에 귀를 기울였다. 갖가지 흘러다니는 말에 궁금해 하던 직원들에게 가정사 상담까지 벌여야 했던 당시는 상당히 죄송하기까지 했었다.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 초기부터 가장 가깝게 일해왔고, 지금은 머나먼 뉴질랜드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민생활에 열중하고 있을 김기영 실장도 고생의 결실인 연구개발정보센터 소속으로 사표를 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이민 스케줄을 최대한 늦추어 가며 연구개발정보센터로 배속받은 직후에 직장을 떠났다. 그의 끈끈한 동료애도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으리라.

설립이 추진되면서부터 관심사였던 초대소장인선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보유통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당시는 SERI 연구위원으로 계셨던 성기수 박사님이 새로 탄생하는 정보센터의 초대소장이 되셔서 국가차원의 정보센터로 끌어주 시기를 무척 바랬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5년간 SERI를 끌어오시고 정보산업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국가 원로이신 분이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가진 신생기관에 오시는 걸 승락하실지 걱정하기도 했었다.

성 박사님이 초대소장 내정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역시 성기수 박사님' 하며 무척 기뻐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